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사이코 드라마'로 병을 이겨내고 있다. '너'와 '나'의 역할을 바꾸면서 상대의 처지에서 그를 이해하고 자기 잘못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다.

지난 7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벽진동 알코올 치료 전문 '광주다사랑병원' 1층 세미나실에 알코올 중독 환자 30여 명이 둘러앉았다. 앞 무대에는 의자 1~2개 만이 놓여 있었다

■ '사이코 드라마'로 치료하는 알코올 중독

# 걱정이 술~술 풀리니 술생각 술~술 줄어요



박희성(왼쪽·가림)씨가 강상범 원장(오른쪽)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광주 다사랑병원 1층 세미나실에서 '사이코 드라마'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30여 명의 다른 알코올 환자는 관객이 돼 함께 치료에 참여했다.

“자~ 오늘은 누가 발표해볼까요?” 강상범(38) 원장이 말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검은 조끼를 입은 박희성(42·가림)씨가 수줍게 손을 들었다.

박씨는 무대에 놓인 의자에 앉더니,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강 원장은 아내 역할을 맡았다. “××엄마, 내가 그동안 잡자리를 피한 이유는 따로 있어. 그 마음은 자네는 모를 거야. 자네는 일하려고고, 나는 놀고... 마음이 아팠지만, 술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어. 그런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역할을 바꿔볼까요.” 강 원장의 말에 이번에는 박씨가 아내 역할을 맡았다. 강 원장은 아내가 된 박씨에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 들려줬다. 조용히 듣고 있는 박씨의 얼굴에 알듯 모를 듯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박씨는 상담사에게도 아쉬웠던 점을 얘기했다. “저한테 많은 점을 뵈셨어요. 어떻게 마음을 열었는데, 떠난다니요.”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

## ‘역할 바꾸기’로 자유롭게 감정 표현 상대 입장 이해하며 닫힌 마음 열어

최진동(45·가림)씨가 상담사로 나섰다. “미안해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회상씩 조금만 힘을 내요. 이번 위기관 잘 넘기면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느덧 1시간이 흘렀다. 이를 지켜본 다른 환자들도 드라마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내에게 진지하게 말을 꺼내본 적은 있나요?” “아직도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벽을 허물어야 해요.”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닫힌 마음을 여는 시간

있었다. 박씨는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어 후련하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 '사이코 드라마'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80명(3병동 40명, 5병동 40명).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11시까지 한 시간씩 진행된다. 보통 30대 후반~40대 초반이 대부분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약 9배 많다.

'사이코 드라마'는 정해진 각본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생각만큼 단단하지도, 논리적이지는 않다. 걸쭉하면 다른 얘기로 빠진다. 하지만 답

한 병실에 누워 약에만 의존했던 이전과 사뭇 달라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역할 바꾸기”를 자주 반복하면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스트레스도 줄어 더 이상 술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행동이 일정한 '패턴'(pattern)으로 되풀이된다는 점을 깨달으면 치료는 끝난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다루는 법칙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다.

강 원장은 “알코올 중독도 불안감·불면증·우울증 등의 갈등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며 닫힌 마음을 서서히 열기만 해도 알코올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예술 화장실’ 생긴다 市, 전국체전 맞춰 3곳 만들기로

광주에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예술화장실'이 문을 연다.

광주시는 13일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맞춰 월드컵 경기장(2곳)과 영주체육관(1곳)에 예술적 개념을 도입한 화장실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화장실에는 지역 작가의 핸드 페인팅과 지역공예품, LED(발광다이오드) 제품 등이 설치되고, 음악도 흘러나오게 해 편안함에 아름다움을 더한 공간이 된다.

시는 시공 과정에 지역 청년 예술가와 일반시민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시는 반응이 좋을 경우 광주역과 광주공항, 버스터미널 등 이용객이 많은 공공장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장실에 예술적 개념을 도입, 문화에



광주시가 월드컵경기장 등에 설치할 예정인 예술화장실 상상도. <광주시청 제공>

수상한다. 도시공사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기업형 팀제 시행 등 과감한 경영혁신 ▲경동2차산단 조성 등 광주시의 정책사업 성공적 추진 ▲임대주택 건설 등 자립기반 구축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회욱 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일을 한 결과”라며 “올해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참여 등 통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도시공사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

광주시도시공사(사장 이회욱)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도시개발부문 1위에 올라,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시공사는 13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200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시개발부문 1위에 올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오는 15일 ‘최우수기관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이날 전국 도시공사 가운데 최초로 노사평화선언을 하는 등 노사화합 공로도 인정받아 ‘노사화합상’도

수상한다. 도시공사는 이번 경영평가에서 ▲기업형 팀제 시행 등 과감한 경영혁신 ▲경동2차산단 조성 등 광주시의 정책사업 성공적 추진 ▲임대주택 건설 등 자립기반 구축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회욱 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일을 한 결과”라며 “올해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참여 등 통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 애로 말하세요”

‘시민의 소리함’ 설치키로

광주시민들의 애로와 민원을 직접 듣는 ‘시민의 소리함’이 설치된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민원실 앞에 시민들과 내부 공무원들의 생활한 현장의 목소리와 민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의 소리함은 박광대 시장이 직접 개봉, 민원사항을 챙기게 된다. 이는 투명한 행정과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시민들을 보다 잘 살게 하겠다는 박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에 직접 들고 애로사항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운영, 공개와 비공개 2가지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 상무역에 특산물 장터 설맞이 15·16일 이틀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15일부터 2일간 상무역에서 전남 3개군 합동 특산물 장터를 갖는다. 시민들이 설을 맞아 질 좋은 특산품을 중간유통 없이 값싸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판매물품은 배·더덕·표고·키조개·낙지 등 장흥 농수산물과 멸치·미역·전복 등 완도 수산물, 검정쌀·오색미·홍주 등 진도군의 농산물 등으로 시중 보다 70% 정도 저렴한 값에 판매된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은 “각 지자체가 보증하는 질 좋은 상품이어서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604-8080)